광주에 '축구 바람' 분다

광주FC, K리그2 1위 질주
U18 금호고 협회장배 우승
올 시즌 전국대회 2관왕 올라

광주FC U18 금호고가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전북현대 U18 영생고를 2-1로 꺾은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어게인 2019' 광주에 축구 바람이 분다.

광주가 축구 도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형님' 광주FC는 홈 연승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K리그2에서 독보적인 1위 질주를 하고 있고, '아우'인 광주 U18 금호고는 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다.

광주 금호고의 시즌 두 번째 우승은 14일 달성됐다.

강원도 평창에서 끝난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금호고는 전북현대 U18 전주 영생고를 2-1로 꺾고 우승팀이 됐다.

지난 2월 5년 만에 백운기 고등축구대회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6경기 무패 행진 속 20골을 몰아넣으며 만든 압도적인 우승이다.

충남아산FC U18과의 첫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둔 금호고는 FC서울 U18인 오산고와는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와의 경기를 5-1 승리로 장식했고, 서울이랜드 U18과 부천FC U18은 각각 3-0과 4-3으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도 광주는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공격수 나상우(3년)가 전반 16분 강동현이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공을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3분 금호고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주장 문민서(3년)가 주인공이었다.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안혁주가 왼쪽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문전으로 질주하던 문민서에게 공을 넘겼다. 한 번 숨을 고른 문민서는 오른발로 그대로 골대를 가르면서 2-0을 만들었다.

금호고는 후반 3분 이준형에게 실점은 했지만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을 지휘한 최수용 감독은 "폭우와 부상 선수 발생 등 각종 변수에도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쳐줬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들의 질주도 뜨겁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 18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14승 2무 2패를 기록, 승점 44점을 쌓았다.

13경기 연속 무패행진과 함께 시도민 구단 홈 최다 연승 기록을 10연승까지 늘렸고, 지난 20라운드 안양전 4-0 승리로 전 구단 상대 승리까지 장식했다.

광주는 K리그2 역사상 최고의 페이스를 과시하면서 우승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2위 대전하나시티즌(10승 5무 3패·승점 35)과는 승점 9점 차, 3위 부천FC(9승 4무 5패·승점 31)은 13점 차로 밀어냈다.

광주는 지난 2019년 19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 행진을 펼치면서 K리그2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승격에 성공했었다. 같은 해 '아우' 금호고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장신 공격수' 허율(3학년)과 '70m 원더골'의 엄지성(2학년) 그리고 '철벽 수문장' 신송훈(2학년)이 버티고 있던 금호고는 K리그 U-18 챔피언십대회,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제74회 전국고교 축구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22년 다시 광주에 축구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최하위로 강등 아픔을 겪었지만 이정효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해 우승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호고도 벌써 2개의 우승컵을 차지하는 등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광주 축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하승운·이으뜸·아론 K리그2 20R 베스트 11

'전 구단 상대 승리'를 합작한 광주FC의 하승운·이으뜸·아론이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하나원큐 K리그2 2022' 20라운드 베스트11을 선정해 발표했다.

FC 안양을 상대로 안방에서 20라운드 경기를 펼쳤던 광주에서는 하승운·이으뜸·아론 등 세 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하승운은 이날 전반 7분 헤더로 골망을 흔들면서 광주의 대공세를 예고했다.

광주는 전반 21분 마이키의 도움을 받은 김종우의 골로 2-0을 만든 뒤, 안양 백동규의 자책골로 3-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후반 31분 박한빈의 패스를 받은 허율의 오른발 슈팅이 시원하게 골대를 가르면서 4-0 승리를 기록했다. 이 경기로 광주는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 시도민구단 홈 최다 연승 경신(10연승) 그리고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장식했다.

노련하게 팀을 이끈 '베테랑' 이으뜸이 다시 한번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이으뜸은 이 경기에서 '친정' 안양을 상대로 200경기 출장 위업도 이뤘다.

무실점 승리를 완성한 외국인 수비수 아론도 처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드래곤즈에서는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유헤이가 명단에 포함됐다.

유헤이는 1-1로 맞선 후반 15분 발로텔리의 패스를 받아 시원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는 윌리안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2-2 무승부로 막이내렸다.

전남은 이장관 감독의 'K리그 데뷔전'에서 경기 시작 58초 만에 나온 임찬울의 골을 더해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이 경기는 20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한편 MVP는 1골 1도움을 기록한 안산그리너스의 까뇨뚜의 차지가 됐다.

까뇨뚜는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넣었고, 침투 패스로 강수일의 골을 도우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11

▲MVP: 까뇨뚜(안산) ▲FW: 하승운(광주), 윌리안(경남), 까뇨뚜(안산) ▲MF: 유헤이(전남), 이상민(안산), 박세직(충남아산) ▲DF: 이으뜸(광주), 아론(광주), 김민호(안산), 배수용(충남아산),▲GK: 박주원(충남아산) ▲베스트 매치: 전남(2) vs (2)경남 ▲베스트 팀: 안산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팔꿈치 수술 결정 … 시즌 아웃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류현진이 곧 왼쪽 팔꿈치 척골 측부 인대(UCL) 부상으로 수술을 받는다. 부상 정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류현진은 인대를 일부 제거하거나, 완전한 재건하는 토미 존 서저리를 받을 예정"이라며 "올 시즌 남은 시즌에는 던질 수 없고, 내년 시즌 초반도 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5월 어깨, 2016년 9월 팔꿈치 수술을 집도한 켈란 조브 정형외과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가 추가 검진을 한 뒤 류현진의 수술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팔꿈치 인대 일부'를 제거하면 재활 기간은 1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팔꿈치 인대를 완전히 재건하는 '토미 존 서저리'를 받으면 재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MLB닷컴 등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수술 결정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빨리 마운드에 올라 경쟁하고 싶어하지만, 당분간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며 "구단은 류현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다. 앞으로 그의 수술과 재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이번이 야구 인생 4번째다.

그는 동산고 2학년이던 2004년 4월에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재활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인 2015년 5월에는 선수 생활을 건 왼쪽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류현진은 2016년 9월 왼쪽 팔꿈치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자 또 한 번 수술대에 올랐다.

어깨 수술과 팔꿈치 수술을 연이어 받은 류현진은 2017년 개막과 동시에 빅리그 마운드에 섰고 이후 재기에 성공했다.

2016년 이후에도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적은 있지만, 수술은 피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접어든 2022년, 6년 만에 다시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류현진은 지난 4월 1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이 끝난 뒤 왼쪽 팔뚝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올 시즌 첫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배구 강성형 감독 시구

광주 출신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강성형(사진) 감독이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강성형 감독을 초청해 승리 기원 시구 이벤트를 연다.

전남대사대부고 출신이자 KIA 팬인 강성형 감독은 '도드람 2021-22 V리그' 현대건설을 여자부 정상에 올려 놓은 명장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강성형 감독은 지난 시즌 개막 12연승을 비롯해 최다연승(15연승)을 기록하는 등 현대건설 배구단을' 역대급강팀'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시구는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단 간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KIA는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과 마스코트 교류 시구·시축 이벤트도 벌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 대 이집트 경기가 한국의 4-1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벤투 감독과 그라운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월드컵 '6월 모의고사' 공격은 '합격'·수비는 '글쎄'

4연전 전적 2승 1무 1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이집트전을 끝으로 6월 A매치 4연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벤투호는 브라질(1-5 패), 칠레(2-0 승), 파라과이(2-2 무), 이집트(4-1 승)를 차례로 상대하며 본선 경쟁력을 시험했다.

벤투호의 이번 4연전 전적은 2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선뜻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벤투호는 브라질전에서 수비가 크게 흔들렸다. 상대의 강도 높은 압박에 허둥대다가 5골을 헌납했다.

빠르게 최선의 선택지를 찾고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개인 기량을 갖춘 브라질 공격수들 앞에서 벤투호 수비진은 속수무책이었다.

전반 7분 산드루가 한국 수비수 둘 사이를 허무할 정도로 쉽게 순간 스피드로 뚫어내고 득점까지 올리는 장면은 한국 수비진과 세계 톱 레벨 공격수들 사이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도 수비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칠레전에서는 후반 초반 상대 선수가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경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장면을 노출했다.

파라과이전에서는 수비진에서 잇따라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고, 후반 중반까지 0-2로 끌려다녀야 했다.

최종예선 10경기를 3실점으로 틀어막았던 벤투호의 단단한 수비력은 이번 4연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동의 주전이지만 부상으로 이번 A매치 기간에 소집되지 못한 '괴물 센터백' 김민재(페네르바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 4연전이었다.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탈압박 능력에 스피드, 롱패스 능력을 겸비한 김민재가 전열로 복귀한다면, 벤투호 수비는 다시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선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김민재가 없는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